



전주기전대, 2급 치유농업사 양성과정 수료식

전주기전대학 치유농업사 양성사업단(단장 최연우)은 본교 평생학습원에서 2024년 치유농업사 양성과정(2급) 수료식을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수료생 39명은 4월 26일부터 7월 12일까지 주 2일씩 치유농업 개론, 치유농업 서비스의 대상자 진단, 치유농업 지원 관리, 치유농업 시설환경 관리, 치유농업 프로그램 기획 개발, 치유농업 서비스 실행 및 평가 등 모두 146시간 총 22회 교육을 이수했다.

이날 수료생들의 대표 류재근씨는 “전주기전대학 치유농업사 양성과정 4기 교육과정을 통해 스스로 치유되는 경험을 했던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동기들과 함께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치유농업 전도사가 되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최연우 단장은 “4기 치유농업사 2급 양성과정 수료생들에게 수료 축하와 함께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2급 치유농업사 자격시험에서 좋은 결과가 있길 응원한다”며 “앞으로도 차별화 된 치유농업 양성교육기관으로 성과를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정읍시 시기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환경 정화

정읍시 시기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회장 김희상)는 꽤적인 마을 조성을 위해 지난 16일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했다. 회원들과 주민센터 직원들은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여름 휴가철을 맞아 고향에 찾아온 방문객들과 주민들을 위해 아침부터 화단 잡초 제거와 주변 쓰레기 수거 등 지역 환경 가꾸기에 앞장섰다.

김희상 회장은 “아름다운 마을을 우리 손으로 직접 가꿀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으로 지역주민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임실 지사면 행복보장협의체, 하천변 환경정비

지사면 행복보장협의체(공공위원장 김길영, 민간위원장 변현섭)가 최근 위원 13명이 참여한 가운데 실곡교에서 영천교까지 하천변 일대에서 풀베기 작업과 환경정비 활동을 전개했다.

환경정비 활동에 참여한 협의체 위원들은 가로수변 및 마을 진입로의 우거진 잡초를 제거하는 등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구슬땀을 흘리며 지역의 환경정화 활동에 앞장섰다. 변현섭 민간위원장은 “풀베기 작업을 통해 받은 인건비는 지사면 행복보장협의체 운영 등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지원하여 관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사용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행복한 지사면 만들기에 지사면 행복보장협의체가 적극 동참하겠다”고 전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부귀면 서명재씨, 진안군 우수 산양삼 널리 알려

‘2024년 우수산양삼 전시회’ 참가…산양삼 출품·전시·홍보활동



진안군 부귀면에서 산양삼을 재배하는 서명재 씨는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서울 여의도 국제금융센터에서

열린 ‘2024년 우수 산양삼 전시회’에 참가해 우수 산양삼을 널리 알렸다.

‘2024년 우수 산양삼 전시회’는 산림청 주최, 한국임업진흥원 주관으로 산양삼의 가치와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돼 산양삼의 효능과 재배 방법에 대한 강연은 물론 고년근 프리미엄 산양삼 전시·경매 행사, 산불특수진화대원을 위한 기부 및 후원 활동 등으로 진행됐다.

서명재 씨는 13년근 이상의 고품질 산양삼을 재배해 온 농가로, 무농약 검사를 통과했으며 우수한 품질로 평가받아 우수산양삼 전시회에서 그의 산양삼이 특별 전시되기도 했다.

서명재 씨는 “직접 재배한 산양삼을 많은 분들께 소개할 수 있어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품질 좋은 산양삼을 재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서명재 씨와 같은 성실한 산양삼 재배업가들이 산양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남원시치매안심센터-대자인병원, 치매조기검진 협약

남원시보건소(소장 한용재) 치매안심센터는 17일, 치매 진단평가를 위해 대자인병원(병원장 이병관)과 치매 조기검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남원시는 대자인병원 신경과 전문의를 협력 의사로 위촉, 치매안심센터에서 진단평가를 진행한 결과 치매 원인에 대한 감별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는 협약 병원과 연계해 감별검사를 진행, 하루라도 빠르고 편리하게 치매조기검진을 받아 치매를 조기에 발견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게 되었다.

용재 보건소장은 “치매는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히 치료할 경우 원치 또는 증증 상태로의 진행을 억제하거나 증상을 개선하는 것이 가능, 조기에 발견을 위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미래인재 중학생 해외영어 캠프’ 진행

총 24명 학생들 17박 18일 일정… 뉴질랜드 공립 중학교 수업·홈스테이 참여

남원시는 관내 미래인재 중학생 해외영어 캠프가 지난 7월 17일 힘찬 출발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프는 지역 학생들에게 최고의 혜택을 제공하고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 경험을 제공하는 인재 양성 사업으로, 남원교육지원청에서 2024 남원시 고향사랑 기부금을 지원받아 추진중이며, 출발식에는 참여학생과 학부모, 신병기 남원교육지원청 교육장을 비롯한 참여교사와 시 관계자 등 60여명이 함께했다.

캠프에는 남원 관내 중학교에서 선발된 2학년 학생 24명

이 참여하여, 17박 18일 일정으로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 Casebrook Intermediate School(케이스브룩) 공립 중학교에서 현지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듣고 홈스테이를 통해 문화 체험과 영어 실력 향상, 글로벌 마인드 험양의 기회를 가질 예정이다.

한 학부모는 “남원에서 나고 자라 자녀 양육을 하고 있는데, 고향을 사랑하는 분들의 도움을 받아 자녀의 인생에 큰 선물을 준 것 같아 너무 감사드린다”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대한안마사협회 전북지부, 나눔의 안마 봉사활동

김제시 백구면 행정복지센터는 전북지역에서 활동하는 안마사들이 17일 장상마을에서 마을 경로당 어르신을 대상으로 안마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사)대한안마사협회는 의료법에 따른 교육 및 수련과정을 미친 시각장애인 안마사들로 구성된 단체로, 안마사들의 전문화된 봉사를 통해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안마사 5명이 방문해 안마서비스를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

앞서 지난 6월 19일에도 백구면 공술마을에 방문해 20명의 주민이 안마를 받아 호응이 좋았으며 이번에 진행된 행사는 두 번째로 실시됐다.

대한안마사협회 전북지부 조현준 지부장은 “안마를 받고 돌아가는 주민들의 환한 표정을 보니 마음이 훈족하다.”며 “안마에 대한 인식전환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진안소방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연중 운영

진안소방서는 17일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다중이용업소, 판매, 운수, 숙박, 의료, 균린 생활, 노유자, 문화집회, 위락시설 등이며, 위반행위는 비상구 폐쇄(잠금 포함), 복도·계단 출입구 폐쇄·훼손 및 비상구·파난통로 물건 적치 등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다.

신고 방법은 포상금 지급신청서에 따라 사전 혹은 영상 등의 증빙자료를 첨부해 48시간 이내 관할 소방서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 등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다. /진안=우태만 기자

본인이 뚱뚱하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쏘옥 뺄수 있습니다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